

금수강산

11

2026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6 ISSN 1727—9062

루계 제447호 월간

차 례

2026년 11월호

제447호
1989년 8월 창간

표지: 통합병설학교를 찾은 재일동포들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 성원들이 통합병설학교인 락랑구역 전진고급중학교를 돌아보면서 조국의 교육발전상을 체감하였다.

사진 김영호

2 ‖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빛내여주시려

8 ‖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9 ‖ 공예《용맹한 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10 ‖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12 ‖ 어머니혁신자들

수필
13 ‖ 어머니에 대한 생각

14 ‖ 마을사람들이 존경하는 할머니

16 ‖ 언제나 조국과 마음을 잇고

20 ‖ 조국방문의 나날에

고향소식
22 ‖ 약전농장의 새 모습

애국의 넋은 대를 이어
26 ‖ 《환자의 생명이자 나의 생명이다》













28 ‖ 경공업의 발전상을 보여준 전시회

30 ‖ 기술혁신을 앞세워

32 ‖ 부단한 탐구, 전진

34 ‖ 최우수정보기술기업들

36 ‖ 다방면적인 지식과 재능의 소유자들로

38 ‖ 가야금을 사랑하는 모녀교육자

40 ‖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들로

42 ‖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44 ‖ 꿩고기료리로 소문난 식당

46 ‖ 모란봉에서 만난 부자화가

48 ‖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을 풍부히 하는 사람들

조선의 전통음식
51 ‖ 김치

명승지
52 ‖ 신평금강

천연기념물
56 ‖ 오차바위

력사유적
57 ‖ 홍복사6각7층탑

편집: 김광수, 서철남, 문송연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빛내여주시려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푸른 합각지붕을 떠이고 높이 솟아있는 인민대학습당, 평양대극장, 옥류관, 인민문화궁전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고색창연한 을밀대, 련광정, 보통문 등 력사유적들마다에서 깊은 인상을 받아안군 한다.

지난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재중동포 량리향은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국은 어디 가나 우리 인민의 정서와 향취가 공기처럼 흐릅니다. 우리의 색채가 질은 살림집들이 가는 곳마다 일떠서고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조선옷을 즐겨입으며 춤을 춰도 우리 장단에 맞추어 추고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의 고유한 민속전통을 잃어버리고있지만 조국에서는 민속전통이 나날이 꽃펴나고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빛내이는것은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지나온 인류력사를 돌이켜볼 때 적지 않은 민족들이 사멸되거나 이질화되게 된것은 중요하게 그들이 자기의 본태를 고수하는 사업을 잘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우리의 전통을 찾아내고 발전시켜나갈 때 모든 사회성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적극 일해나갈수 있다.

일찌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사업에서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민속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 기간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 억센 기상과 애국정신, 우수한 력사유산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살려나가는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함께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을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사회주의건설 전 과정이 우리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꽃펴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가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확증해주시고 세월의 이끼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발굴고증하도록 이끄시여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을 나라의 재보로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유산보호사업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문화, 풍습을 깊이 심어주는 사업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조상전래의 우수한 민속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여 온 나라에 우리의 향취가 차넘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월산과 칠보산을 비롯한 명산들을 찾으시여 력사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하며 그것을 통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참된 혁명가가 되자면 자기 나라의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것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언제인가는 일군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대를 이어오면서 지켜온 민속전통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과 례의도덕, 조선사람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기호와 특성이 반영되여있다고,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인민들이 민속명절을 쇠여도 우리 식으로 쇠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에 맞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도처에 일떠섰으며 민속명절과 민속



단군릉







력사의 이끼속에 묻혀 신화적인 존재로만 여겨오던 단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실재한 인물이였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1994년 단군릉이 훌륭히 개건되였다.

놀이, 민족음식이 적극 장려되고 문화유산들이 나라의 귀중한 재보로 대를 이어 전해지게 되였다.

우리의 민족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고수되고 나날이 더욱 꽃펴나고 있다.

그이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일군들에게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고 대를 이어 전해오는 가치있는 창조물들과 미풍량속을 귀중히 여기며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킬데 대하여》 등을 발표하시여 민족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0여년전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돌아보실 때에도 현대적미감과 민족적특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잘 시공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하시였으며 일군들에게 건축에서 생명인 주체성,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면서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항공역사를 잘 건설했다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멋이 살아난다고 하시였다.

그해 8월 새로 건설한 평양양로원에 나오시여서는 날아갈듯한 합각지붕을 떠이고 솟은 양로원건물을 바라보시며 민족적인 건축형식으로 건설하여놓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가고, 평양양로원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것의 하나가 건물외부와 내부의 모든 요소를 민족적인 건축형식으로 처리한것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 땅우에 현대적인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지 못하면 창조활동의 기본핵, 생명을 잃는것으로 되기에 그이께서는

나라의 곳곳에 민족적색채가 짙은 건축물들이 일떠섰다



인민대학습당



국제친선전람관



평양양로원



화성각



인민문화궁전

력사문화유적들이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보통문



칠성문



선죽교



개성성의 일부



동명왕릉

건설부문에서 우리의 얼굴이 살아나는 건축형식을 더욱 장려하도록 하시였다.

화성김치공장을 여러 차례 찾으시여서도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명수준에 맞게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것은 민족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민족전통음식이며 세계5대 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김치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식품으로 당당히 자랑할수 있게 생산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언제인가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들은 조선민족의 정서와 향취가 넘쳐나는 민족음악을 좋아한다고, 민족음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음악예술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음악예술이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참다운 인민적음악예술로 될수 있다고 당부하시였다.

하여 사회생활의 어디서나 우리의것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향취가 짙게 풍기는 음악, 무용, 미술을 비롯한 예술과 체육이 장려되고있으며 유희오락을 하여도 윷놀이, 팽이치기와 같은 민속놀이들을 즐겨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력사유산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벌어져 해마다 국가비물질문화유산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은 물론 《평양랭면풍습》을 비롯한 유산들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되였다.

정녕 우리 조국 그 어디에서나 찬란한 문화와 전통이 널리 장려되고있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조국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련면히 이어지고 인민의 슬기와 기상으로 부흥번영하는 나라로 세세년년 누리에 자랑떨칠것이다.

글 엄향심





민족음악과 체육, 민속놀이, 민속옷차림, 민속음식 등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풍습이 적극 장려되고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국가부흥의 전면적발전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인민들의 정신력과 창조적열의를 비상히 분발승화시키고 사회주의의 전진을 적극 떠밀어주는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로 되고있다. 그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정신에 기초하고 있기때문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정신적기초로 하고있다.

강력한 국가건설위업은 철저히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국가건설의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지도사상, 국가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사상이다.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는 주체사상을 국가정치철학으로 확립하고 국가건설과 활동전반에 구현하여온 력사이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전체 인민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순간도 멈춤없이 벌려왔으며 국가건설의 전 행정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우리 나라가 자주의 성새,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솟아오르게 된것은 주체사상, 자주정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영원한 기치로 삼고 우리 공화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다음으로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기초로 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헌신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시였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고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두고온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시기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인민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장정이 있어 우리 조국은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세계만방에 위용떨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 유산이며 실천의 본보기인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간직하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가고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고있는것이다.

*　　*　　*

공예 《용맹한 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2010년 10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드린 선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전호에서 계속)

《나는 지금껏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정신으로 살아왔소. 동무는 나에게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주었소. 인민을 위해 살자! 평범한 이 한마디 말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있소. 나는 평생 이 구호를 잊지 않겠소.》

리용국은 내 손을 그러잡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이 맹세를 생활에서 만족스레 구현할수 없었다. 동만특위가 그를 현당서기의 직책에서 해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던것이다. 특위에서는 리용국이 원래부터 엠엘파라고 하면서 왕청현당이 쏘베트로선집행에서 극도의 좌경을 범하였기때문에 그를 해임시켰는데 그에게는 《민생단》혐의도 있다고 하였다.

리용국이 엠엘파라는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당한 소리였다. 세린하에서 청년사업을 하고있던 그를 동만특위 공청서기로 추천한 사람이 과거 엠엘파에 관계했던 인물이였을뿐이다. 극좌적인 쏘베트로선의 집행으로 인하여 빚어진 모든 후과의 책임을 현당서기 한사람에게만 들씌운다는것도 무리하고 비도덕적인 처사였다. 리용국에게 철직책벌을 적용한다면 쏘베트로선을 내려먹인 사람들과 그 집행을 강요한 당사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책벌을 주어야 하는가.

리용국이 《민생단》이라는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당치않은 소리였다.

나는 그가 종파도 아니고 《민생단》도 아니라는것을 루루이 보증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오의성과의 담판을 위하여 라자구에 가있을 때 리용국은 끝내 《반혁명분자》의 감투를 쓰고 처형당하였다. 그가 살아온 경력을 보면 《민생단》으로 될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한때 체포의 선풍을 피하여 망명해간 연해주에서 리용국은 망명객으로 일생을 편안히 살아갈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혁명을 위하여 다시 간도땅에 돌아와 태풍속에 몸을 내던지였다.

이처럼 성실하고 량심적인 인간이 어떻게 되여 《민생단》모자를 쓰게 되였는지 나는 아직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

5구에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된 얼마후 동장영은 나를 찾아와 웃는 얼굴로 쾌활하게 말했다.

《**김일성**동지, 오래지 않아 우리는 국제당 파견원동지의 참석하에 로선전환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5구에서 인민혁명정부를 건설한 경험도 있으니 정권문제와 관련된 기본발언을 **김일성**동지에게 부탁합니다.》

그해 여름 로선전환을 토의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였다. 이 회의에는 로선전환에 관한 문건을 가지고 동만지방에 온 국제당파견원도 참가하였다.

나는 이 회의에서 로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정부로서의 인민혁명정부로선을 내놓고 정부의 시정방침에 관한 안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그안에는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경제, 교육, 문화, 보건,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제반 민주주의적시책들이 명시되여있었다. 우리의 안은 국제당의 새로운 로선에도 부합되는것이였다. 국제당파견원은 우리가 제창한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심각한 론전과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날자를 끌며 여러날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인민혁명정부로선에 기초하여 쏘베트를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하고 유격구의 모든 지역들에서 쏘베트로선의 좌경적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가 있은 후 동만지방의 모든 쏘베트들은 인민혁명정부로 개편되였다.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는 과도적형태로 농민위원회를 내오고 점차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사유재산철폐의 명목밑에 몰수하여 유격구 인민들이 소비한 재산에 대해서는 인민혁명정부가 현금과 현물로 보상해주었다.

인민혁명정부는 인민이 주인이 되여 다스리는 정부로서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원쑤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였다.

가야허에서의 인민혁명정부수립과 로선전환회의를 계기로 하여 동만 각 현의 혁명조직구들에는 구인민혁명정부가 나오고 마을마다에는 촌인민혁명정부가 출현하였다. 구인민혁명정부들에는 회장, 부회장, 9~11명의 집행위원을 두었으며 토지부, 군사부, 경제부, 식량부, 통신부, 의료부 등의 부서들을 두었다.

이것이 해방후 우리 인민정권을 탄생시킨 맹아였고 원형이였다.

인민혁명정부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유격구안의 모든 곳에서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였다. 그 당시 소왕청유격근거지에는 1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채벌로동과 류벌로동, 숯구이로동에 종사하고있었다. 그중 500여명은 2구소재지인 셋째섬에 있었고 나머지 500여명은 방초령에서 마촌으로 넘어가는 령밑에서 로동하였는데 8시간로동제의 혜택을 받았다.

인민혁명정부의 엄격한 요구에 따라 개인기업주들은 로동자들에게 종전의 2배나 되는 로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주변의 산림도 자기의 관할하에 두고 통제하였으며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목재를 한대도 베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 조치가 발효를 보기 시작하자 대두천에 있는 친화목재소의 일본인소장과 중국인목재상은 유격구에 찾아와 채벌허가를 얻기 위한 담판을 요청하였다. 그 담판이 있은 다음부터 목재업자들과 목재상들은 나무 한대에 1원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되는 피복, 식량, 일용품들을 유격구에 납부하고 목재를 채벌해갔다.

인민혁명정부는 유격구부락들에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무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주민들이 리수구와 십리평에 있는 유격구병원들에서 무상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남녀평등권의 실시로 하여 녀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사업에 참가하였다.

유격구에서는 출판소, 재봉소, 무기수리소도 운영하였다.

유격구의 문화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을 두고 부를 명가요들을 수많이 창작해내였고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로 이어지는 연극예술의 개화기를 마련하였다.

몰인정과 수탈의 상징으로 되였던 쏘베트란 말은 과거를 추억케 하는 하나의 작은 파편으로만 남게 되였다. 좌경적인 쏘베트시책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적구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유격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로인들은 등에 대통을 꽂고 자유롭게 마을돌이를 다니였다. 유격구는 또다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웃음소리 랑랑한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 되였다.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왕청의 골짜기와 산등성이들에서는 산천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천만가지 꽃망울들의 속삭임과 함께 새로운 생활이 힘차게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생활이 어찌나도 부러웠던지 채사령부대가 소왕청에 인질로 데려온 한 지주의 아들은 유격구에서 자기를 쫓아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까지 하였다.

(끝)

어머니혁신자들



홍예경



엄미화



최명희

평양기초식품공장에는 수십년세월 한직종에서 일하고있는 녀성로동자들이 많다.

로동자 홍예경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배치되여 지금까지 려과공이라는 한직종에서 40년을 일해오고있는 로력혁신자이다.

이 기간 그는 끊임없는 사색과 노력으로 설비들의 특성과 생산공정의 요구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기대조작방법을 찾아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생산에서 설비의 정상가동을 위해 짬시간을 리용하여 기대설비점검보수에 필요한 수십종의 소공구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았으며 새로 입직하는 성원들도 적극 도와주었다.

로동자 엄미화와 최명희 역시 처녀시절부터 30여년세월 착유공, 제조공이라는 한직종에서 일하고있는 고급기능공들이다.

엄미화는 착유기들의 만가동을 위해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작업반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보다 높여나가도록 도와주었다.

뿐만아니라 자기 작업반원들과 함께 직장안의 종업원들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직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해마다 넘쳐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최명희도 된장생산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을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기술자들과의 련계밑에 새로운 생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직장안의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맡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해오고있다. 그 과정에 온 공장이 아는 로력혁신자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비록 생김새와 이름은 서로 달라도 하나와 같은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다.

글 김대철, 사진 김영호

수필

어머니에 대한 생각

이제 얼마 안있어 어머니날이다.

어느 가정에서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류다른 계획들이 세워지고있다.

수많은 꽃매대들과 축하장, 기념품을 봉사하는 상점들에서는 며칠전부터 꽃다발과 꽃송이, 축하장과 기념품을 예약하거나 사는 사람들로 흥성인다.

그러는 모습들을 볼수록 생각도 깊어졌다.

어머니!

이 땅에 고고성을 울리며 태여난 살붙이를 열두자락 치마폭에 소중히 품어안고 추울세라 더울세라 젖은 손 마를새없이 애지중지 키워온 어머니.

첫걸음마를 뗄적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인생의 먼길을 곧바로 꿋꿋이 걸어가도록 걱정도 많고 몰라보게 성장하는 자식의 모습에서 기쁨을 찾으며 어쩌다 생긴 별식마저 자식의 입에 넣어주는것이 바로 어머니이다.

때로는 잔소리군같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제일 융통성없는 《막대기》같기도 한 어머니들의 가르침속에 모두가 자랐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

밥을 먹을 때 밥알을 흘려서는 안된다. 뻐스에 올라 웃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라에도 손해를 끼치게 된다. 웃어른을 존경하고 동무들과는 마음을 나누어야 하느리라. 거리로 나설 땐 옷깃을 바로 여미고 머리단장을 잘하거라. …

쌀 한알에 스민 땀방울을 귀해할줄 알아야 부모의 은혜를 느낄줄도, 조국의 사랑에 보답할 줄도 알게 된다는것, 어떤 고난앞에 마주서더라도 의지를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것, 아름다운 외모는 아름다운 내면의 반영이라는것을…

나는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가르친 모든것이 옳다는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렸을 때처럼 무슨 일을 하고나서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의 눈빛을 살핀다. 그 눈빛이 내가 한것은 옳다 혹은 틀렸다 긍정도 해주고 비판도 해주기를 기다린다.

자그마한 난관앞에서 조금만 물러서려는 기미만 보여도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도록 해라.》고 나를 타일렀다.

다 자라 어른이 되여도 어머니의 눈빛과 손길은 언제나 나의 곁에 머물러있으며 나를 바로잡아주었다.

마치도 한그루의 나무가 창공을 향해 곧바로 자라도록.

이것은 나 하나만의 체험이 아니다.

이 나라 모든 자식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있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에 대한 추억일것이다.

이런 수천수만의 어머니들의 바르고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빛나는 조국의 오늘을 떠올린것 아니던가.

그렇다.

인생의 첫 스승인 우리 어머니들.

바로 그분들의 그 고심과 헌신, 노력이 있어 이 나라의 아들딸들은 언제나 참대처럼 곧바르게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조국을 먼저 아는 애국자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것 아니랴.

나는 축하장에 이렇게 써넣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글 엄향심



마을사람들이 존경하는 할머니



김옥선녀성

지난해 11월 평양시 대성구역의 어느한 회의실에서는 87살 난 녀성에게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수여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만사람의 각광을 받으며 무대에 오른 그가 바로 맏아들은 박사로, 둘째아들은 영웅으로 내세운 대성구역 청호동에서 살고있는 김옥선녀성이였다.

그러나 그가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받은것은 비단 두 아들을 조국앞에 훌륭히 내세운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김옥선녀성은 해방전 머슴군의 셋째딸로 태여났다. 그때 그의 어머니의 단 한가지 소원은 일곱남매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것이였다고 한다.

어린시절 김옥선녀성의 추억이라면 가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주접이 들어 살던 애처로운 자기의 모습뿐이였다.

그러했던 그의 운명은 조국의 해방과 함께 완전히 달라지게 되였다.

나라의 혜택으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배울수 있었고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희망대로 교단에까지 서게 되였다.

그는 무한히 행복하였고 더 바랄것이 없었다. 애오라지 바라는것이 있다면 모든것을 다해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고싶은 마음뿐이였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평양에 올라온 후 유치원 교양원, 원장으로 사업할 때에도 맡은 일에 누구보다 열성이였고 사회주의건설장들에도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보내주었다.

맏딸 박성희는 《다섯자식을 키우느라 손에 물이 마를새 없었던 어머니였지만 직장에서 돌아오면 남새도 가꾸고 집짐승들도 키웠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라고 회상하였다.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한생의 거울로 새겨져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준 자양분으로 되였다.

생활에서 여유가 생기는것은 차곡차곡 모았다가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주는것이 김옥선녀성의 생의 락으로 되였다.

그런 김옥선녀성을 나라에서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내세워주었고 2023년 12월에는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도 불러주었다.

김옥선녀성이 대회장에서 돌아온 날 청호동의 크지 않은 그의 집은 밤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던 두 아들까지 포함하여 일가식솔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는 영광을 지니였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싶어 모여왔다.

둘째아들인 나래도자기공장 지배인 박성민은 《그때 어머니는 긴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옥선녀성(오른쪽에서 세번째)

대회에 참가하고보니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였더라고, 자기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날 밤 김옥선녀성은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고 또 적었다. 그것은 85살 난 그가 새롭게 세우는 인생의 계획이고 목표였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들이 애국의 길을 이어가고있다고 나의 본분이 끝나는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한생의 애국일지를 꼬박꼬박 더듬어보며 더 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갔다.

그것이 어느 한순간의 충동이나 격정이 아님을 사람들은 그 이튿날부터 어렵지 않게 알게 되였다.

옥선녀성은 새벽부터 집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남새밭을 가꾸었으며 그렇게 키운 돼지와 남새들을 고스란히 중요대상건설장으로 보내주었다.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옥선녀성이 살림집건설장과 평안북도 피해복구지역 등에 보낸 지원물자는 수백점에 달한다고 한다.

그에게 마을사람들이 이제는 여생을 편히 보내도 되지 않겠는가고 밀할 때면 김옥선녀성은 《애국은 나이로 하는것이 아니라네.》라고 대답하군 한다.

변함없이 애국의 길을 걸어가고있는 김옥선녀성을 두고 사람들은 《청호동의 애국자할머니》라고 정담아 부르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김영호

용어해설

집단주의정신

집단주의정신은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가의 고유한 품성이다.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집단주의정신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집단주의정신이 혁명가가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하나인 동시에 다른 모든 사상정신적품성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휘하게 하는 정신이기때문이다.

*　　*　　*



언제나 조국과 마음을 잇고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일군들이 조선사람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번영과 동포들의 단합을 위한 애국활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중요명절을 맞을 때마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심양, 단동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고있으며 경축행사, 기념행사들을 의의있게 진행하고 있다. 도서전시회와 공연, 영화감상회 등을 통해 동포들은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애국활동을 벌려온 긍지높은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에서는 총련합회의 지도밑에 많은 동포청년들을 조직에 굳게 묶어세우고 조국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면서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잡지 《금수강산》을 비롯하여 조국의 출판물들에 대한 독보와 동포들의 조국방문소감을 이야기하는 모임 등을 실감있게 조직하고있다.

총련합회에서는 동포사회의 단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총련합회는 협회와 지부의 일군들이 자기들의 활동을 동포들의 생활과 밀착시키고 제기되는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도록 하여 그들에게 동포조직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고있다. 이들의 열성적이고 꾸준한 활동에 의해 많은 지부들이 모범지부의 영예를 지니였다.













총련합회에서는 여러 회의와 행사들을 통하여 동포들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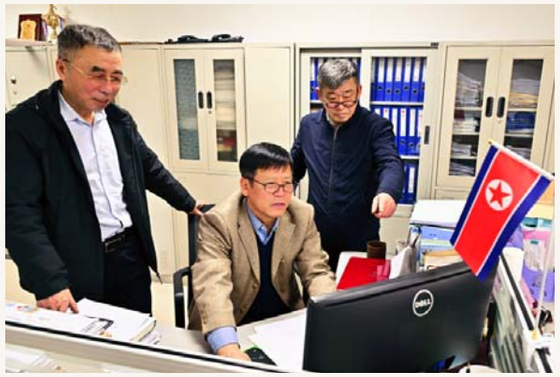
오늘 동포들은 자기의 가정과 동포조직, 조국을 하나로 잇고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의 일군들과 동포들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치며 크나작으나 자신들의 지성을 다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일군들과 동포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오늘 동포사회에서 애국의 대는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몸은 비록 이역에 살아도 조선사람의 넋을 안고 참되게 살려는것은 동포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글 변진혁
사진 김성철



맡은 사업에서 책임성을 높여간다.



우리의 춤, 우리의 노래로 흥성인다.



생일상도 마련해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성원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상무위원회 위원들

조국방문의 나날에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방문기간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였으며 이 과정에 인생의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몸가까이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을 청취하였으며 그이를 모시고 기념공연도 관람하였던것이다.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날의 감격이 너무도 커서 대표단성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대표단단장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연설에서 해외동포교육일군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실 때에 너무도 눈물이 솟구쳐 몸둘바를 몰랐다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대표단은 조국방문의 나날 만경대혁명사적지, 조선혁명박물관, 국제친선전람관 등을 참관하였으며 통합병설학교인 락랑구역 전진고급중학교도 돌아보았다.

연건평이 근 2만㎡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병설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대표단성원들은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최영호동포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교종별교육 전 과정이 그들의 실천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 조국의 여러곳을 참관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이 개천절행사에 참가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은 통합병설학교인 락랑구역 전진고급중학교도 돌아보았다.

실기능력을 높이는데 중심을 둔 련속교육과정으로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정말 조국의 교육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사진도 찍었다.

글 엄향심, 사진 김호

고향소식

약전농장의 새모습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에서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우리는 해외동포들에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전하고싶어 평안남도 숙천군 약전농장으로 향하였다.

우리와 만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로력영웅인 경리 김성희는 자기 고장에서 옛말처럼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지난날 이 고장은 갈밭이 대부분이였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땅이 매우 척박하고 물이 부족하다보니 농사마저 안되여 야산에 약초나 심어 겨우 목숨을 연명하였다고 마을이름을 약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고장사람들이 논농사를 마음껏 지을수 있게 된것은 1950년대에 평남관개공사가 완성된 때부터였다. 논밭마다 관개수가 흘러넘치니 사람들은 성수가 나서 농사에 달라붙었다. 그들은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필지별로 따져가며 토양분석표를 만들고 그에 맞게 옥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과 수십정보의 랭습지를 개량하는 사업들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논농사에서 성과가 이룩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농장원들은 주변의 야산들에 사과, 배, 복숭아나무들을 심어 과수원을 조성하고 축산기지를 건설하는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리는 오늘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에 따라 약전농장의 면모도 안팎으로 일신되고있다고 소개하는것이였다.

그는 자기 농장이 선진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종전에는 볼수 없었던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한해가 다르게 농장원들속에서 과학농사열의가 대단히 높아지고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농장의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서 느낄수 있었다.

농장에서는 농업과학원 농업정보화연구소의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자체의 실정에 맞게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농업과 관련한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매 작업반들과 련결된 망을 통하여 진행하고있었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농장원들이 필요한 과학기술지식과 최신영농기술을 제때에 습득하도록 하고 농장적으로 우수한 작업반의 농사경험을 알려주어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고있었다.

《농산과 축산, 양어와 과수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고 농장원들의 물질문화생활도 크게 향상되여 우리 농장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30대최우수농장으로, 온 나라가 다 아는 농장으로 되였습니다.》라고 경리는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보급실에서 나온 우리가 농장포전으로 향한 길에 나서니 무인기들이 포전에 영양액을 분무하는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경리는 우리에게 오늘과 같이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과학농사를 적극 받아들이니 생산량은 부쩍 올라가고 로동의 기쁨도 커만 간다는것이였다.

이 고장사람들은 논판양어의 덕도 크게 보고있었다.

우리가 메기들이 욱실거리는 어느한 논판에 이르니 농장원 지현송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윽고 그가 논판에 팽화먹이를 뿌려주자 메기들이 물면우로 떠오르며 저마다 먹이를 먹겠다고 용을 쓰는것이였다.

현송은 10여정보의 논판에 새끼메기들을 놓아주었는데 지금 마리당 평균무게가 1kg이 넘





는다며 올해에도 메기농사에서 대풍은 문제없다고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사료생산용설비제작을 위해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난관도 많았지만 무조건 해내겠다는 결심을 품고 달라붙어 오늘과 같은 결실을 이루어냈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받들고 농장원들이 국가의 지원과 방조속에 건설한 벼모재배 및 남새온실과 새로 개건한 탁아소와 유치원, 아늑하면서도 현대미가 나게 꾸려진 정양소 등 여러곳들도 돌아보았다.

이어 우리는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나라에서 새로 지어준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편 80살 난 박석표로인의 가정도 찾았다.

로인은 우리에게 이 고장에서 살아오면서 약전리가 이렇게까지 변모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런것을 두고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이라고 부르는게 아닌가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날이 달라지는 농장의 모습을 보는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식들에



게 농사를 더 잘 짓는것으로써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이른다는것이였다.

들어볼수록 그 의미는 참으로 큰것이였다.

약전농장의 모습은 그대로 나날이 변모되여가는 사회주의 우리 농촌의 새 모습이였다.

우리는 마을의 불밝은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뒤에 남기고 다음 취재길을 이어갔다.

글 윤혁
사진 전선일







《환자의 생명이자 나의 생명이다》



로견준

《아버지, 나 크면 아버지처럼 의사가 될래요.》

《의사? 좋지. 그러자면 공부를 잘해서 의술을 높여야 한다. 의술이 높은 의사만이 환자를 잘 치료할수 있단다.》

김만유병원 정형외과 부과장 로견준이 어릴 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온 아버지가 몹시도 부러웠다. 사경에 처했던 환자도 아버지의 손이 닿으면 병을 털고 일어나는것이 그는 신기하게만 여겨졌다.

평양의학대학 림상제2의학부 신경외과학강좌 강좌장을 하던 그의 아버지 로영한은 신경외과 분야의 권위자였다.

공훈과학자이며 박사 부교수인 아버지는 뇌혈관질병치료를 잘하였는데 특히 뇌종양환자들에 대한 미세외과적수술에 특기가 있었다.

언제인가 뇌종양환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고 밤늦게 집에 온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늘 수술이 참 어려웠다고 하면서 수술과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환자의 뇌중심부 깊은 부위에 묻혀있는 종양을 보는 순간 마음이 긴장해졌다. 미세한 피줄이라도 잘못 건드려놓으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로 이어질수 있었다. 나는 10㎝정도밖에 안되는 뇌중심부까지의 거리를 2시간동안 헤쳐나갔다. 그러다나니 10시간이나 수술집도를 했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였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만족감에 힘든줄 몰랐다. 만약 그 환자가 내가 살던 일본에서 이러한 병을 앓았다면 막대한 수술비를 내야 했을것이다. 우리 나라는 참 좋은 나라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앞으로 의사가 되면 환자의 생명이자 나의 생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한건한건의 수술에 자신을 바쳐야 한다.》라고 아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의사가 되였다.

그는 능란한 수술수기를 소유하는것과 함께 수술회수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치료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수술방도를 찾기 위하여 사색을 거듭하였다.

선행문헌들을 탐독하며 정형외과발전추세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요추추간판탈출증때 탈출된 수핵이 신경근에 미치는 응력 및 변위분포에 대해 밝혀냈고 정형외과분야에서 힘든 수술로 되여있던 척추후방고정술도 손색없이 하게 되였다. 그리고 선배들과 함께 인공대퇴관절치환술을 더욱 세련시켜 성공률과 완치률을 높여나갔다.

그는 많은 의료기구들도 개발하였다. 그가 개발한 척추후방고정기구들은 전국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번은 어느해 설날 척추골절에 복합외상을 당한 한 환자가 병원으로 실려들어온적이 있었다. 그는 지체없이 의사협의회를 열고 척추후방제압 및 후방고정술을 진행한것은 물론 수술후에도 환자의 결을 떠나지 않았으며 병상태가 호전되여갈 때에는 영양보충에 좋은 음식들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수술전협의회를 하고있는 로견준(오른쪽에서 두번째)

이러한 날과 달속에 로견준 부과장은 환자들속에서 수술수기가 높은 의사로 공인되게 되였다.

로견준부과장에게는 고급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의사를 지망하고있다.

글 김세헌
사진 김강무

상식

눈보호에 도움을 주는 식품 몇가지

- 시금치

시금치에는 크산토필이 많이 들어있다. 크산토필은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시금치를 비롯한 잎남새에는 백내장예방에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 냉이

오랜 시간 콤퓨터를 마주하고있는 사무원들속에서 눈알건조증이 쉽게 생긴다.

카로틴이 풍부히 들어있는 냉이를 자주 먹으면 눈알건조증이 예방되고 눈이 깔깔한 증세도 해소된다. 또한 냉이에 풍부히 들어있는 비타민B군과 비타민C, 칼시움, 철성분은 인체에 좋다.

- 닭알노란자위

닭알노란자위에 크산토필과 루테인이 들어있어 눈보호에 좋다. 노란자위의 색이 진할수록 눈에 더 좋다.

* * *



경공업의 발전상을 보여준 전시회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이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열풍》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경공업성, 지방공업성, 봉화무역국 등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 각 도의 피복공장, 신발공장, 가방공장, 양복점들을 비롯한 270여개의 단위들이 참가하여 각양각색의 계절옷들과 신발, 가방, 모자, 천 그리고 각종 기호품들을 출품하였다.

경공업성의 한 일군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개막을 앞둔 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면서 제품들의 형태와 모양, 색갈과 질은 물론 상표와 진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질제고와 새 제품개발에 모를 박고 경쟁열풍을 고조시켜나가는 경공업부문의 비약적이고도 실속있는 발전면모가 확연히 알린다고, 이번 전시회는 날로 향상되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웅변해주고 우리 경공업의 발전궤도를 직관해주고있다는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고 하였다.

지난 시기보다 더 새롭고 다종다양하게 만들어진 피복과 신발제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봉화무역국에서 출품한 산뜻하면서도 우아한 감을 주는 흰색의 녀자외투는 수에로 여러가지 무늬를 새겨 그 장식효과를 더욱 높여준것으로 하여 녀성들속에서 인기가 높았다.

성천군옷공장에서는 군의 특산인 명주를 리용하여 만든 비단잠옷과 내의류를 비롯한 수십종의 피복제품들을 전시하였는데 사람들은 상표만 없으면 중앙과 지방의 제품을 미처 가려보지 못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원산구두공장에서는 의료용신발, 승마장화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신발들을 전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매봉산》상표를 단 제품들이 가지수가 많으며 이전과는 대비도 할수 없게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류원신발공장과 평양구두공장에서도 색갈과 형식이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았다. 평양시 서성구역의 한 주민은 《류원》아동신발들이 모두 맵시있으면서도 가볍고 편안하다고 하면서 딸에게 줄 운동신발을 여러컬레나 골랐다고 하였다.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은 우리 경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여주었다.

글 채향옥
사진 라평렬, 류광혁



기술혁신을 앞세워

평양시 락랑구역에 위치하고있는 평양선경건재사업소는 수지건재를 비롯한 각종 건재품들을 다량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에 이바지하고있는 능력있는 건재생산단위이다.

2012년 9월에 세워진 사업소는 지난 10여년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자기의 연혁을 빛내여왔다.

사업소의 생산지표는 여러가지 재질과 규격의 수지관들과 색철판지붕재들, 수지창과 알루미니움창, 단열창, 외장재와 내장재들, 각종 규격의 경량강철구조물과 철울타리 그리고 돌탁, 돌가시대를 비롯한 다양한 돌가공제품들 등 수십가지나 된다.

생산을 시작하여 두해만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들에 다량의 수지관과 부속관, 지붕재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사업소의 이름은 국내건재생산분야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그후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생산장성을 이룩하여 삼지연시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 송화지구 살림집건설, 농촌살림집건설 등 늘어나는 대상건설들에 다양한 건재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보장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켰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사업소는 기술혁신을 앞세워 선진적인 생산공정을 갖추고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생산에서 질보장을 우선시하였으며 생산 및 판매, 경영활동에서 신용위주의 원칙을 견지해나갔다.

소장인 최남철자신이 기술혁신에 앞장섰는데 이것은 사업소의 모든 종업원들이 이 사업에 적극 나서게 한 동력으로 되였다.

수지관생산만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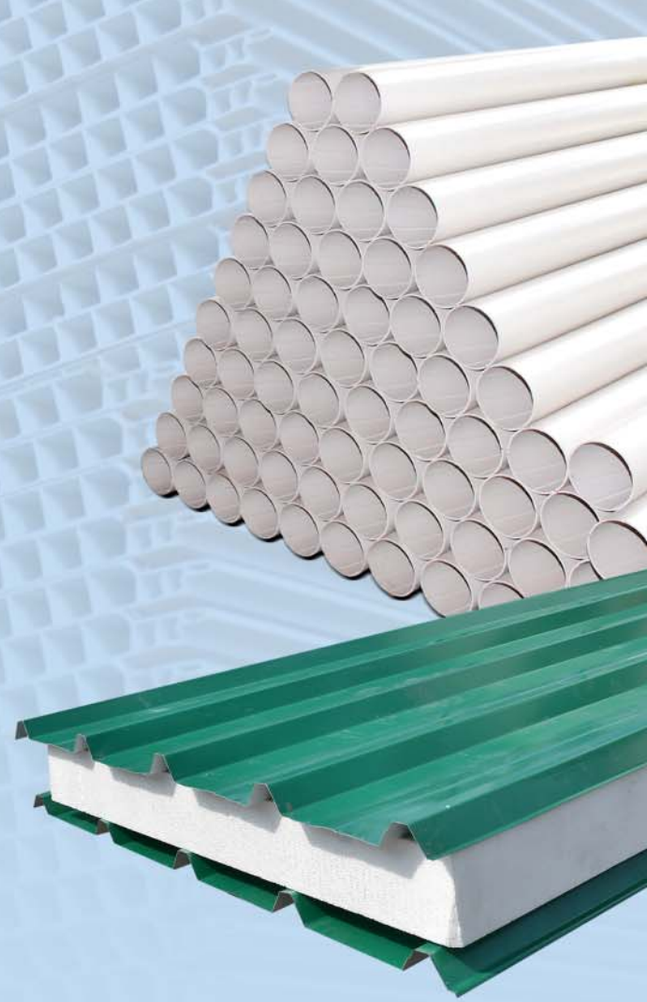
소장이 직접 개발한 수지관제조용진공성형기는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의 발명품은 압축공기식에 의한 지난 시기의 불합리한 생산공정을 혁신한것으로서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당시)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소장의 발명은 온 사업소에 기술혁신의 된바람이 일어번지게 하였다.

종업원들은 집체적지혜로 수지관랭각계통과 날개식수지혼합기, PVC수지관접합물을 비롯한 10여건의 창안품들을 내놓아 제품생산에 도입하였다.

사업소의 기술혁신성과로 생산공정의 갱신과 제품의 품종확대 등 자체생산능력이 보다 높아지고있다.

소장 최남철은 부단한 기술혁신만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업소의 능력을 제고할수 있는 기본열쇠라고 이야기하였다.



글 김성경, 사진 김호





부단한 탐구, 전진

평양철도건물관리사업소 건축기술개발소가 생겨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해놓은 일은 결코 적다고 말할수 없다. 2023년부터 해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새 기술들을 개발하여 3건의 특허권증서를 받은것은 물론 전국과학기술축전들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허권증서를 받은 《석고를 리용한 반구형곡면판의 생산방법》, 《먼적외선복사체를 리용한 건구판》, 《고무절연선이 없는 승강기조종체계》들은 전문가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많은 단위들이 개발소가 거둔 성과의 비결에 대해 알고싶어하며 교류와 협력을 바라고 있다.

박권일소장은 《인재관리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목표를 높이 세우고 노력한데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달을 향해 쏜 화살이 산을 향해 쏜 화살보다 더 높이 날아간다.>》라고 서두를 뗐다.

이들은 견본모방형이나 남이 내놓은것을 일정하게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이라고 말할수 있는 개발창조를 목표로 내세웠다.

처음 주목을 돌린것은 건축물의 마감건재로 쓰이고있는 석고건재품이였다. 석고건재품은 건축물의 천정과 벽체의 장식판으로뿐 아니라 보온판, 방음판, 방화판으로 많이 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리용해온 석고제품들은 자체질량이 무겁고 세기가 약한것으로 하여 다루기 불편한데다가 시공공정이 까다롭고 운반 및 시공과정에 파손되는 률이 적지 않았다.

더우기 석고는 빨리 굳어지는 특성이 있어 두께가 얇으면서도 길이가 긴 석고판과 구조변화용석고제품을 만드는것이 어려운것으로 되여있었다.

이들은 이 분야의 문헌들을 연구하고 모의설계와 실험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구조변화용석고제품개발에 달라붙었다.

목표가 높은것만큼 애로도 많았다. 연구사업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게 되자 이쯤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목표를 좀 낮추어야 한다는 동요의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을 다잡고 모두가 분발해나섰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반구형, 접시형 등 구조변화용석고제품들이 개발되였다. 이어 그들은 여러가지 형태의 석고제품을 내놓을수 있는 형타도 제작하였다.

하여 석고장식판, 석고굽도리장식띠, 석고기둥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제품들이 련속 개발되였다.

개발된 록색형석고제품들은 조립과 해체, 변경, 이동이 간단하며 시공후 건축물의 중량을 최소화할수 있고 안전성과 미학성이 충분히 담보되는것으로 하여 도입단위들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들은 적외선무선통신승강기조종체계인 《고무절연선이 없는 승강기조종체계》도 개발하였으며 《먼적외선복사체를 리용한 건구판》도 내놓았다.

승강기조종체계는 제37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을, 인민경제 부문별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25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글 엄향심
사진 김강무



생산된 제품의 일부



최우수 정보기술기업들



인공지능프로그람경연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닌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의 연구사들

지난해 우리 나라의 정보화와 정보산업발전에 이바지한 10개의 단위들이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되였다.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들중에는 자체의 과학기술력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의 과학화, 정보화와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제품들을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5에 내놓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와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소도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는 2017년부터 8차에 걸쳐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의 영예를 지니고있는 괄목할만한 단위이다.

특히 2024년에는 첫 최우수정보기술자도 배출되였다.

성과의 요인에 대하여 정보기술연구소 소장 박사 부교수 송억철은 자체의 인재력량에 있다고 말하고있다.

자기 분야에 필요한 인재는 자체로 키워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소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단계들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전망성있게 키워내고있다. 대학의 전공학부에서만이 아니라 기타 학부들에서 인재들을 찾아내고 품을 들여 체계적으로 키우고있는것은 물론 실력있는 연구사들과 함께 중요대상과제들도 맡아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협동연구과정에 학생들의 리론적자질과 실천실기능력은 높아졌으며 이들이 졸업후에는 연구소에서 중추적역할을 하게 되였다.

이들이 개발한 인공지능분야의 정보기술제품들이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과 전시회들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으며 농업과 교육, 보건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특히 심층신경망기술과 대자료기술을 리용하여 완성한 다국어기계번역프로그람은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5에서 진행된 인공지능프로그람경연에서 1등을 하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이 된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소는 2016년 3월에 설립되였다.

연구소는 20대, 30대의 전도양양한 기술력량이 주력을 이루고 전력관리정보기술, 제품개발 등 전력부문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교류활동을 기본으로 진행하고있다.

연구소의 가장 큰 성과는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축한것이다.

수년전 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들은 다른 나라들의 실태를 연구하면서 국내 전력관리에서 나타나고있는 우결함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뿐만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화력, 수력발전소들과 변전소, 배전소들의 실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끔히 장악할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방안설계를 무르익혔다.

1년만에 체계는 개발되였지만 첫 련동시험에서 실패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과감히 일어나 실패의 원인을 찾았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국가통합전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후 실시간자료수집 및 감시조종체계, 전력지리정보체계, 전력생산관리체계, 전력공급 및 교차계약체계를 비롯하여 분체계들은 10여개로 늘어나고 각종 장치들이 연구개발되였다.

이들이 개발한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는 2022년 과학기술혁신상을 받았다. 그로부터 2년후에는 년간 옹근 하나의 큰 발전소를 건설한것과 맞먹는 전기를 절약하는것은 물론이고 전력계통의 안정성도 훨씬 제고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았으며 연구집단은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연구소 소장 박사 김경수는 2024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였다.

첫걸음을 힘있게 내짚은 이곳 연구집단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리영철



통합전력관리체계의 운영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린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소의 연구사들

다방면적인 지식과 재능의 소유자들로

- 평성시 중덕소학교에서 -





평성시 중덕소학교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였다.

색조화를 맞춰 타일을 붙인 산듯한감을 자아내는 교사외벽과 인공잔디를 깐 운동장, 소학교학생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꾸려놓은 야외학습터, 수영장 등 학교의 외부도 볼만하지만 내부도 그에 못지 않다.

특히 교사의 복도에 꾸려진 자연학습홀과 영어학습홀은 하나의 자연축소판, 실효성있는 영어과외학습터이다.

조건이 갖추어진데 맞게 학교에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있다.

교원들은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우월한 새 교수방법들을 적극 창조도입하고있다.

이곳 교원들이 창조한 학습지원프로그람과 새로운 시험방법, 모나무를 리용한 지능계발놀이교수방법은 나어린 학생들의 심리적특성을 잘 반영하고





그들을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로 되게 하는것으로 하여 도에는 물론 전국에 일반화되였다. 그중에서도 2025년 10대 최우수교원의 영예를 지닌 림혜심교원이 제작한 많은 교편물과 실험기구는 소학교학생들이 자연과목교수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나게, 원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 많은 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 새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로 되였다.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재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서 학교의 과외소조운영이 큰 역할을 하고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수학, 영어, 글짓기, 음악, 축구 등의 소조들을 운영하고있으며 학생들은 지망하는 소조들에서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학생들속에서 최우등생이 늘어난것은 물론 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체육경기들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비옥한 토양에서 거목이 자라듯이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속에서만 나라를 떠메고나갈 인재들이 자라날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학생들을 키우는 사업이 한걸음 늦춰지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떠진다는 자각을 안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한동숙교장만이 아닌 이곳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글 김지성
사진 김강무

가야금을 사랑하는 모녀교육자



어머니 류재련



딸 김명심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 31인민반에는 민족악기를 가르치는 모녀교육자가 있다.

어머니인 류재련은 중구역 리철민고급중학교에서, 딸인 김명심은 중구역 련화소학교에서 교원으로 사업하고있다.

류재련녀성은 30여년간 수많은 가야금연주가들을 키워냈다.

민족음악을 무척 사랑하였던 어머니의 손길에 이끌려 8살에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가야금과 인연을 맺은 류재련녀성은 학생시절 수많은 공연무대들에서 능란한 가야금연주로 이름을 날리였다.

그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섰다.

학창시절부터 품어온 가야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그로 하여금 민족악기를 배워주는 음악교원의 길을 선택하게 하였다.

학생들에게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가야금을 배워주는것이 그의 소망이였다.

그 소망을 안고 류재련녀성은 처녀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 학생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쳤으며 그 나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인민의 나라》에 학생들과 함께 출연도 하였다.



학생들에게 민족음악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있는 김명심



손자와 함께 있는 류재련녀성과 그의 딸 김명심

해마다 전국적인 학생소년들의 예술경연에서 학교의 학생들이 우승의 영예를 지닐수 있은것도 류재련녀성의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의 딸인 김명심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 민족악기인 가야금을 배웠다.

학창시절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학생소년들의 예술개인경연에서 1등을 한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민족악기를 배워주는 교원이 되였다.

지난해에는 그가 키운 학생이 제60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서 1등을 하였다.

저녁이면 종종 어머니와 딸이 모여앉아 가야금의 교육방법을 토론한다. 나이별학생들의 체질적, 심리적특성에 보다 적합한 교육내용과 그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모녀의 진지한 모습은 집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익숙되였다.

그럴 때면 류재련녀성의 남편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고있는 사위도 의견들을 내놓군 한다고 한다.

《우리의 민족악기인 가야금이야 롱현을 잘 살려야 제맛이 나지.》

《단순히 예술적기량만을 중시할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격과 취미, 신체조건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기초우에서 그에 따르는 적합한 교육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저녁일과와 더불어 학생들의 가야금연주기량도 날로 높아져 리철민고급중학교와 련화소학교라면 민족악기를 잘하는 학교들로 전국에 소문이 났다.

하기에 그들을 두고 사람들은 민족악기를 사랑하는 모녀교육자라고 정담아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상식

서 리

서리는 땅겉면 혹은 풀이나 나무판자 등 물체들의 겉면온도가 0℃아래로 내려갔을 때 공기속의 수증기가 액체(이슬)상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체상태로 넘어가면서 그 물체의 겉면에 붙어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서리가 낀 겉면에 해가 비치면 반짝거리는 느낌을 준다.

서리가 생기려면 물체의 겉면온도가 0℃아래일뿐 아니라 그 온도가 물체주변공기의 서리점온도와 같거나 더 낮아야 한다.

땅겉면이나 물체겉면온도가 제일 내려가는 때는 새벽녘이고 이때 역시 공기의 상대습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것만큼 서리가 잘 낀다.

밤에 바람이 세게 불었거나 구름이 질은 날 새벽에는 서리가 잘 생기지 않는다.

*　　*　　*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들로

- 평성청년경기장과외체육학교에서 -

평성청년경기장과외체육학교는 국내의 과외체육학교들중에서 무시할수 없는 학교로 소문났다.

지난 시기 이 학교에서는 17살미만,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들에 참가하였던 축구선수들인 로은향, 정복영, 유정향, 리의경, 리경임, 류진주를 비롯하여 전도유망한 국가대표선수들을 적지 않게 배출하였다.

학교가 이룩한 성과의 비결은 체육교수훈련의 과학화사업을 관건적인 고리로 여기고 실속있게 내민데 있다.

축구선수후비육성만 놓고보아도 학교에서는 적성체질을 갖춘 학생들을 과학적으로 선발한데 토대하여 그들의 체질과 나이, 준비정도에 맞게 훈련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단계별로 정확한 기초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훈련방법을 받아들이고있다. 그리고 훈련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면서 훈련경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을 육체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고있다. 특히 방향전환, 속도달리기, 뒤로이동, 지속달리기뿐 아니라 끊임없이 주위상황을 살피고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하는 축구종목의 특성에 맞게 집중력개발훈련과 시폭확대훈련 등 우월한 훈련방법들을 받아들여 학생들을 지능형의 축구선수후비들로 키워가고있다.

한편 학교에서는 종목별지도교원들이 혁신적인 안목으로 선진적인 교육방법들과 교육수단들을 사격, 예술체조, 권투 등 해당 체육종목의 교수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학생들의 기초기술습득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세계적인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는 속독력개발훈련, 단전호흡훈련, 기능성육체훈련을 비롯한 앞선 훈련방법들이 종목별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도입되여 학생들의 지적능력, 육체적능력은 날로 개선되고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저항극복훈련기재, 발목관절운동기재를 비롯한 효률적인 운동기재들도 창안제작하여 체육교수훈련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학교에서는 매월 학생들에 대한 육체기술지표측검정형을 자료화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평가에 토대하여 지도교원들이 훈련지도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일관성있게 내밀고있다.

체육교수훈련의 과학화사업이 목적지향성있게 더욱 개선되여감에 따라 체육선수후비육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올해에 진행된 제62차 전국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에서 이곳 학생들은 축구, 권투, 사격, 예술체조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조신남부교장은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체육교수훈련의 과학화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학생들을 나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도유망한 체육선수후비들로 키워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김성영
사진 김강무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글 엄향심, 사진 김호

《〈성실〉, 이 두 글자만 있다면…》



김병훈(가운데)

2025년 최우수발명가로 선정된 사람들중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종합분석소 실장 교수 박사 김병훈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석부문에서 발명가가 나온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실지 큰 과학연구성과가 이룩되였을 때 그것을 연구한 과학자는 모두의 찬탄의 대상이 되지만 밑거름이 되여준 분석전문가의 수고를 헤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병훈실장은 분석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누가 보건말건 성실하게 일하였으며 그 과정에 15건의 발명을 하였다. 특히 최근년간에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우는 희토류원소들중의 하나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정량분석할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쌓아온 그의 경험과 노력의 결과였다.

2006년 희토류원소의 하나인 네오딤의 정량분석으로 첫 발명을 한 그는 그때부터 희토류원소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특히 희토류광물매장량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 그것이 일단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농업과 축산업, 잠업과 의학 등 여러 부문에 도입되면 놀라운 경제발전이 이룩될수 있는것으로 하여 그는 하나하나의 원소들을 무심히 대하지 않았다.

그는 한번 안되면 두번, 세번, 수백차의 실험을 거듭하면서 희토류원소분석에 리용되는 원자흡광분석기의 흑연관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였다.

뿐만아니라 전해질검사기와 생화학자동분석기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분석정확도를 개선할수 있는 의의가 큰 여러건의 발명을 련이어 하였다.

《과학기술과 공업발전의 눈과 귀와도 같은 분석연구가 없이는 새로운 재료를 얻어낼수도 리용할수도 없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귀중한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분석전문가들은 그 누구보다 성실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성실>이라는 두 글자만 있다면 누구나 기적을 창조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는 가치있는 론문들을 SCI급국제학술잡지에 투고하였으며 《희토류화학》,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한 바다물담수화기술》 등 10여종의 참고도서와 100여건의 소론문도 집필하였다.

수학자출신의 건축학박사

평양도시설계연구소 소장 김금철은 건축학박사이다.

10여년전 그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단위시간당 려객통과수결정방법과 비행장의 설계기준 및 건설법규 등을 작성하였다.



김금철

그중에서도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단위시간당 려객통과수결정방법은 아직도 전문가들속에서 큰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당시 비행장 항공역사의 건축설계안이 진척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그 건물의 건축계획이 작성되지 못한데 있었다. 그는 지체없이 려객통과수결정방법에 달라붙었다. 방대한것으로 하여 애로가 많았지만 그는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단위시간당 려객통과수결정방법을 작성하여 내놓았다.

모두가 놀랐다. 김금철소장이 내놓은것은 선행리론들과는 다른 독창적인것이였다.

김금철소장의 방법에 기초하여 비행장 항공역사의 건축설계안작성이 따라섰으며 항공역사는 웅장화려하게 준공되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로 그는 건축학박사칭호를 수여받게 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력학부(당시)를 졸업한 그가 건축학계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것은 건축이 발전된 어느한 나라에 류학을 갔을 때부터였다.

수학을 전공하였던것으로 하여 생소하게만 여겨졌던 건축분야가 파고들면 들수록 수학을 기초로 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무척 관심을 가지고 대하였다.

그는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건축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았으며 높은 건축기술을 소유하게 되였다.

그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 삼지연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검덕의 산악협곡도시, 련포온실농장, 강동종합온실농장 등 수백건의 형성안을 설계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그의 노력이 깃든 창조물들은 형식이 독특하고 착상이 기발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설계에 림합니다.》라고 김금철소장은 자기의 마음을 터놓았다.

상식

봉선화

봉선화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친숙한 꽃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집집의 담장밑에 봉선화를 심고 가꾸어왔다.

처녀애들은 봉선화꽃잎을 뜯어 손톱에 빨간 물을 들이군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서로, 풍습으로 되여왔다.

봉선화물들이기에 대하여서는 력사책들에도 서술되여있다.

봉선화는 품종에 따라 꽃색은 붉은색, 흰색, 붉은보라색, 분홍색 등 여러가지이며 꽃모양과 크기도 각이하다. 만첩종류에는 장미꽃모양, 동백꽃모양, 패랭이꽃모양 등이 있다.

열매는 뾰족한 길둥근모양의 튀는열매이며 겉면에 잔털이 있다.

열매속에는 10~20개의 씨앗이 들어있다. 번식은 씨로 한다.

해빛을 좋아하며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한다. 물기를 많이 요구하며 가물에 약하다.

관상용으로 심으며 줄기와 씨앗을 약재로 쓴다.

* * *



꿩고기료리로 소문난 식당



2024년 10월에 개업한 후로 려명꿩고기료리전문식당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그 리유를 사람들은 두가지로 설명하고있다. 하나는 꿩고기음식이 건강에 좋은 우리 인민의 전통음식이라는것과 다른 하나는 이곳 료리의 가공법이 우수한데 있다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꿩을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왔다.





그것은 꿩고기가 맛이 특별히 좋고 단백질함량과 광물질이 풍부히 들어있어 간기능보호와 콩팥계통질병,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치료에 좋은것으로 하여 건강식품으로 손꼽아왔기때문이다.

식당에서는 전통음식의 특색이 살아나게 손님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친절히 해나가고있다.

우선 식당내부를 꿩고기를 전문으로 봉사하는 식당의 특색이 살아나게 각이한 꿩형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다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뭐니뭐니해도 향기롭고 단맛이 나며 만문하고 영양가가 높은 갖가지 꿩고기음식봉사가 손님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경리 장명옥은 30여명의 료리사들이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특색있는 료리들을 창안하고있는데 시식회, 품평회에서 평가하여 새 료리로 등록하고 봉사하고있다고, 이 과정에 꿩료리의 가지수가 40여가지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였다.

꿩고기탕, 꿩고기온반, 꿩고기전골, 꿩고기쟁반국수, 꿩고기짜장면을 비롯한 꿩고기주식들과 통꿩구이, 꿩백숙, 꿩고기후추구이, 꿩고기완자, 꿩불고기, 인삼꿩곰 등 각종 꿩고기료리들은 그 맛이 계속 갱신되고있다.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제법을 살려 만들고있는 꿩백숙이 유명하다.

주방장 윤남경의 특기라고도 할수 있는 꿩백숙의 제법에서 기본은 꿩의 뼈를 4시간동안 센 불에서 끓여내여 뽀얀 우유빛이 나면서도 노르끼레한 고기국물을 뽑아내는것인데 그의 말에 의하면 꿩백숙의 맛은 기본 고기국물에 있다고 한다.

향신료를 전혀 넣지 않고 끓여내는 이 료리방식은 꿩고기의 진맛과 영양성분을 그대로 유지해주는것으로 하여 꿩백숙은 누구나 즐겨 찾는 음식으로 되고있다.

이곳 식당에서 선택하는 꿩고기재료로는 보통 1kg정도 되는 장끼(수꿩)를 쓰고있는데 그것은 장끼가 까투리(암꿩)보다 맛이 달고 좋기때문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꿩고기탕과 꿩고기전골, 꿩고기온반, 꿩불고기 등 꿩고기료리들은 그 맛이 특색이 있어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최근 이곳 료리사들은 꿩고기후추구이, 꿩고기회를 비롯한 5가지 료리로 특색있는 꿩고기종합료리를 새롭게 내놓았는데 하나의 료리를 주문하여 여러가지 맛을 볼수 있는것으로 하여 손님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전통음식의 맛과 향기로 사람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주는 바로 여기에 이곳 식당의 매력이 있다.

글 강소현, 사진 김영호



















모란봉에서 만난 부자화가

지난 일요일 우리는 모란봉에 올랐다.

경치 아름다운 모란봉은 춤을 추는 로인내외들과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남녀들로 이채로웠다.



손녀와 함께 있는 박영철



아들 박단필

그런가 하면 모란봉의 풍치를 화폭에 담아가는 화가들의 모습도 보이였다. 그들중에서 우리는 낯익은 부자화가를 알아보았다. 박영철과 그의 아들 박단필이였다.

어느한 창작기관에서 단장으로 사업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은 박영철과 령봉대외수공예미술품교류소 과장으로 일하고있는 박단필은 대내외에 그 이름이 자자하다.

아버지인 박영철은 우리 인민의 정서와 현대적미감, 개성이 넘치는 독특한 유화형상기법을 새롭게 창조하고 주옥같은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여 현대회화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공훈예술가이며 국가1급화가이다.

독특하고 고상한 천성적미감과 평범하고 일반적인 대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것을 찾아내는 진취적인 탐구자세, 화가적 자질을 체질화한 박영철선생은 유화분야에서 색상, 밝기의 예술적조화에 기초한 3차원적립체미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그것을 자기의 화가적개성과 훌륭히 결합시켰다.

그의 작품들인 유화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백둘어린이들의 마지막밤》, 《혈육의 정》의 작품들은 흑백농담의 조화, 박력있는 력점, 자유분방하고 세련된 필치로 사람들에게 강렬한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그가 창작한 작품들은 현실주제이건, 인물화이건 하나하나가 미학적이며 과학적인 분석과 종합, 명확한 목표와 결심, 예술적감정에 바탕을 둔 폭발적이면서도 매력적인 형상속에 결속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감상과 사색, 련상의 특유한 세계를 펼쳐주며 아름다운 생활과 희망의 꿈을 안겨주고있다.

박영철선생은 일생 언제나 배운다는 립장에서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주체미술과 세계미술발전추세와 리론을 부단히 연구하여 자기식의 독특한 유화기법을 개척하였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국제미술전람회와 국가미술전람회 등에서 여러 차례 1등을 한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가를 받았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박영철선생의 그림을 보시고 3차원적인 느낌이 든다고, 그의 창작기법은 아주 독특하다는 값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계인사들도 박영철선생의 작품에 대하여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박영철선생은 나이가 되여 은퇴하였어도 화판과 붓은 그의 손에서 언제 한번 떠난적 없다.

그의 아들 박단필도 실력이 만만치 않다.

2008년 9월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진행된 백호미술전시회에서 그가 창작한 유화 《꽃배 동동》은 참관자들의 초점을 모았다.

열렬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은 누구나 조선미술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게 하였으며 심사성원 누구나 1등으로 평가하였다.

박단필화가는 그후에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미술전시회들에 소박하고 고상한 민속주제의 작품들을 출품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의 작품들은 섬세하면서도 현대미와 애국적인 감정이 넘치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늘 사업으로 바쁘지만 그는 쉬는 날이면 아버지와 함께 조국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가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호





아들부자가 그린 그림의 일부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을 풍부히 하는 사람들



황해남도 전통기술보급소의 연구사들

많은 사람들이 황해남도 전통기술보급소의 연구사들을 두고 《자기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우리 나라의 그 어느 지역이나 그러하듯이 황해남도에도 력사기록으로 전해지거나 구전된 문화유산들이 많다. 그것들을 발굴고증하고 우수한 비물질유산들을 골라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며 인민들에게 보급하는것이 이들의 임무이다.

처음 이들은 문화유산들을 발굴고증하는 연구사업을 쉬운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그것이 결코 헐한 일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였다. 력사기록에 몇줄밖에 남아있지 않거나 인민들의 생활속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찾아내여 력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증하는 연구사업은 량심적이면서도 책임성과 성실성을 요구하였다.

어떤 날에는 하나의 유산을 찾아내기 위해 종일 고전들과 도서들을 탐독하였고 어떤 때에는 자료고증을 위해 도안의 여러 고장들에 나가 며칠씩 살다싶이 하였다. 장연군, 연안군, 강령군, 벽성군 등 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황경일소장



도안의 문화유산들을 발굴고증하는 사업이 계속되고있다.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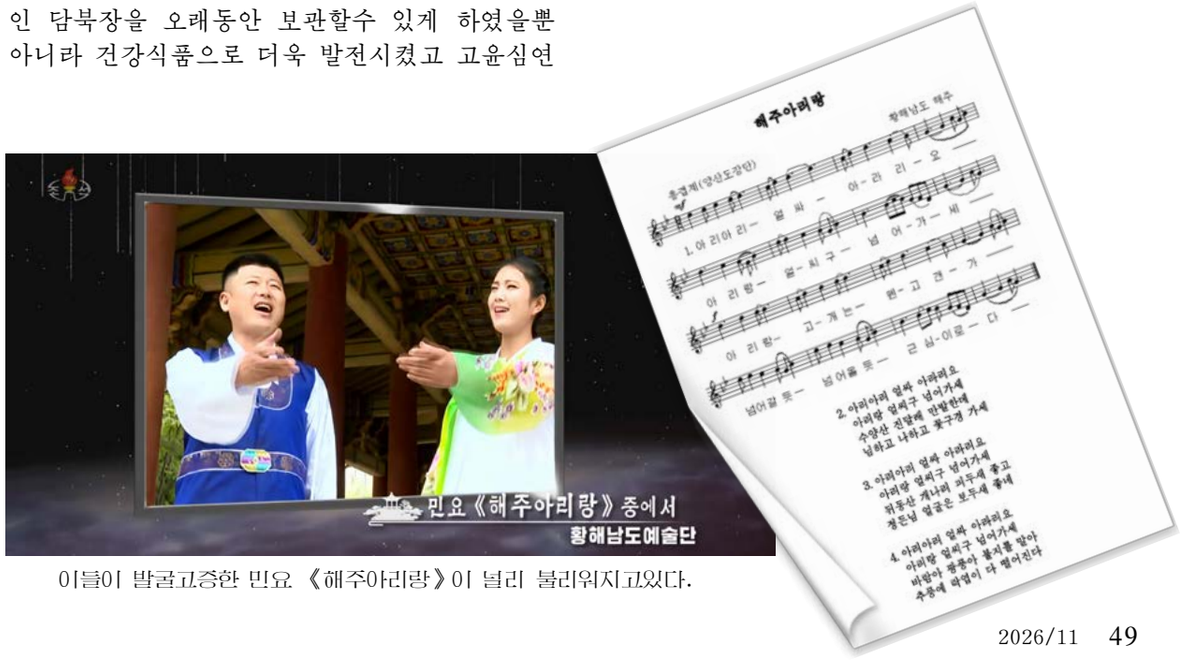
하나의 민요를 발굴하고 자료를 수집해도 그것이 해당 지역의 노래가 맞는가, 가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가, 선률에 우리 나라 고유의 민요가락을 담았는가 등을 파고들며 완전무결함만을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 이들은 유구성과 과학성, 시대성과 가치성이 있는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찾아냈을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다.

황경일소장은 해주지역의 전통적인 속성장류인 담북장을 오래동안 보관할수 있게 하였을뿐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더욱 발전시켰고 고윤심연구사는 고수김치의 가지수를 늘이였다.

우경주연구사는 《우리 황해남도에는 연안찰떡, 강령탈놀이, 방문주를 비롯하여 자랑할만한 문화유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고향에 대한 긍지와 자부를 더해주고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최근년간 보급소에서는 담북장, 《해주아리랑》, 향설고를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장산곶타령》, 해주교반, 고수김치를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이들이 발굴고증한 민요 《해주아리랑》이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이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은 문화유산들을 널리 보급하는데도 주의를 돌리고있다.

연구사들은 도예술단의 창작가, 배우들과 함께 황해도지방에서 전해져내려오던 민요 《해주아리랑》을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재형상하여 보급하고있다. 그리고 해주식당을 비롯한 도안의 급양봉사망들의 일군들, 료리사들과 지혜를 합쳐 해주교반과 고수김치 등을 장려하고 고유한 맛과 향기를 더욱 살리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즐겨 찾는 지방특산음식으로 되게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해당 지역의 경공업공장들과 기초식품생산단위들에 나가 특산품들의 전통적인 생산방법과 기술을 전수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데도 힘을 넣고있다.

오늘 보급소로는 새세대들이 들어서고있다. 그들에게 오랜 연구사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고 이름을 내는 연구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과 우수성을 빛내이는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일이다.》라고 말한다고 한다.

연구사들은 자기 고장과 나라의 문화전통을 풍부히 할 일념으로 책무에 충실하고있다.

글 변진혁, 사진 김영호



황해남도 전통기술보급소의 연구사들이 발굴고증한 문화유산들의 일부



조선의 전통음식

김치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겨울이 오면 김치를 담그는 풍습이 오늘도 가정들에 이어지고있으며 김치생산의 공업화가 실현되였다.









명승지

신평금강

우리 나라에는 천하절승 금강산과 함께 금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명승지가 많다.

그중에는 황해북도 신평군에 자리잡고있는 신평금강명승지도 있다. 40여㎢의 면적에 펼쳐져있는 이 명승지는 우리 나라의 아호비령산줄기에 자리잡고있다.

이 일대는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와 복숭아꽃속에 묻힌 골이라는 의미에서 도화동이라고 불리웠다.

명승지마다 어느것이나 다 자기의 독특한 모습이 있는것처럼 신평금강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은 계곡경치이다.

신평금강의 계곡경치는 계곡미의 《녀왕》으로 불리우는 장수산과 구별되는 개성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계곡경치의 특징의 하나는 대단히 좁은 골짜기로 하여 이루어진 이채로운 절경이라고 할수있다.

특히 사시절 마를줄 모르는 맑은 물이 협곡마다에서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에게 그윽한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진주계곡과 금강계곡, 장수봉계곡, 옥류동계곡, 구룡계곡과 만물상계곡 그리고 도화동계곡, 총석정계곡들은 신평금강의 8대경치를 이룬다.

금방 펼쳐졌던 풍경이 열댓발자국 올라가보면 또 다른 풍경으로 안겨오고 앞으로 가면 또 다시 새로운 풍경이 시작되는 신평금강의 계곡경치가 신비스러운것은 명소들이 조밀하게 분포되여있으며 지형이 단순하지 않고 변화무쌍한것과 관련된다.

처녀처럼 청신하고 아름답다고 하여 처녀담으로 불리우는 담소로부터 시작하여 삼형제담과 단풍담, 옥류담 그리고 3단폭포, 옥류폭포, 선녀폭포, 총각폭포 등은 신평금강의 계곡경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모든 협곡들의 절벽경사면이 층층이 단을 이루



안개낀 신평금강

며 뻗어있고 절벽마다에 띠모양으로 형성된 수림으로 하여 계곡경치는 매혹적이다.

봄철에는 각양각색의 꽃무늬띠, 여름에는 진한 풀색띠, 가을에는 붉은 단풍띠, 겨울에는 흰 눈띠가 감색의 절벽띠와 어울려 풍경은 마치 색동천을 필필이 늘여놓은듯싶다.

신평금강은 평양-원산관광도로상에서 려행자들을 위한 도중휴식장소로,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져있다.

글 김대철, 사진 김혁철

신평금강의 가을

오차바위



오차바위는 황해남도 룡연군 읍에서 수십㎞ 떨어진 몽금포의 남서부연안에 있다.

불타산줄기의 연장으로서 하나의 반도를 이루고있는 장산곶은 규암이 해식작용을 받아 생긴것이다. 오차바위도 이러한 원인으로 생긴 기묘한 바위이다. 바다기슭에는 높이 10~30m에 달하는 벼랑들이 늘어서있다. 오차바위의 높이는 12~15m이고 밑둘레는 약 10m이다.

오차바위는 규칙적인 층으로 이루어져있다.

오차바위는 규암이 해식과 풍화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위로서 학술적의의가 크며 조선서해안에서도 보기 드문것이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상식

우리 나라에서 숟가락의 리용력사

식사도구의 하나인 숟가락은 우리 나라에서 그 리용력사가 매우 오래다.

우리 나라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숟가락유물로는 라선시 선봉구역 굴포동 서포항유적 신석기시대 11호집자리에서 나온 뼈로 만든 숟가락과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4호집자리에서 나온 화강암으로 만든 숟가락을 들수 있다.

서포항유적이나 표대유적에서 나온 숟가락들은 현재 우리 인민이 리용하는것들과 생김새가 기본적으로 같으나 크기와 재질에서는 차이가 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쓰던 숟가락유물들을 보면 뼈나 돌같은것을 손으로 가공하여 만든것들이며 크기도 지금것보다 작다.

서포항유적의 뼈숟가락은 신석기시대 후기의것이며 표대유적의 돌숟가락은 고조선시기에 해당되는것이다.

*　　*　　*

홍복사6각7층탑

고려시기의 돌탑인 홍복사6각7층탑은 현재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 위치하고있다.

탑의 높이는 5. 35m이다.

탑의 바닥돌과 기단, 탑몸 등 주요구성요소들의 평면은 6각으로 되여있으며 전반적으로 균형이 째이고 조각이 섬세하며 부드럽다.

이 탑은 흔치 않은 6각평면의 돌탑이면서 고려돌탑의 풍격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탑은 우리 인민의 훌륭한 석조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물로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글 김성경





조선장기수풀이 (46)

장기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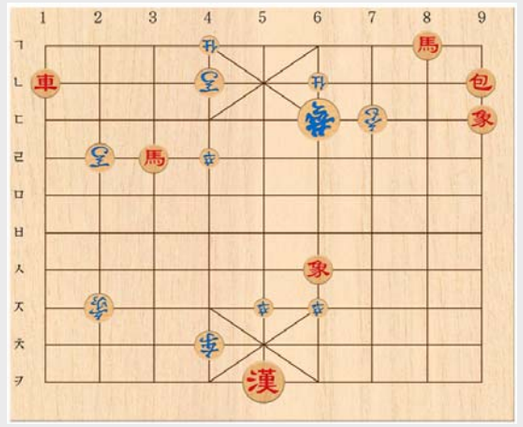
로홍청청

장기를 두기 전에 쪽을 선택하는데서 나이많은 사람이 붉은색쪽을, 젊은 사람이 푸른색쪽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 말은 언제나 웃사람에게 붉은색쪽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장기례의로 된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로홍청청은 아래사람이 푸른색쪽을 가진다는데로부터 일명 로홍소청이라고도 한다.

장기수풀이 (45)의 답

ㄹ4차ㄱ4, ㄱ3포ㄱ5, ㄴ9말ㄱ7, ㄷ6상ㄱ9, ㅋ4포ㅈ6, ㄱ9상ㄷ6, ㄱ4차ㄴ5《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뒤표지: 금강산의 해금강문

ㄱ-26088060550